

유리로 된 透明貫子 一個, 鐵製破片 四點, 土缸의 입전部分의 破片 四點도 收拾하였는바 이러한 一括遺物로 보아 高麗末期의 土葬墳墓 및 그 副葬品의 種은 一例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 百濟 王興寺址 搬出遺物

洪 思 俊

扶餘郡 窺岩面 新九里(왕언이部落)에 位置한 王興寺址는 一九三三年頃 盧道陽教授(明智大)에 依하여 女瓦에 「王興(高麗)銘文이 밝혀짐에서 비로소 學界에 알려진 것이다.

三國史記에는 「法王二年春正月創王興寺度僧三十人」云云하여 그 位置가 未詳하며(武王三十五年春一月王興寺云云은 彌勒寺의 誤記) 三國遺事法王禁殺條에는 王興寺가 王都附近에 있는 것을 알리는 同時에 寺域 周圍環境을 알리고 있다. 즉

「明年庚申度僧三十人創王興寺於時都泗泚城今扶餘……附山臨水花木秀麗四時之美具焉王每命舟泛河入寺賞其形勝壯麗」云云

그리고 王이 이 寺址에 行香한 것도 알리고 있으며 니와 三國遺事南扶餘百濟條에도 燧石을 紹介한 文句에 아래와 같이 있다.

「又泗泚崖又有一石坐十餘人百濟王欲幸王興寺禮佛先於此石望拜佛其石自煖因名燧石」

(燧石은 扶餘舊校里구들래 가마바위로 불) 다시 三國遺事太宗春秋公條에는 王興寺의 位置를 間接의 으로 알려준 文句라 하겠다.

「五年庚申(義慈王二十年)六月王興寺僧皆見如舡揖隨大水入寺門有大大如野鹿自西至泗泚岸向王宮吠之俄石知所之」云云

二

그러면 記錄의 王興寺와 왕언리部落의 王興寺址 位置를 알게되리라

보는데 이 王興寺址에서 果然 그 當時의 遺物이 現在 殘存하고 있을까 살펴 볼적에 現場에는 東西一線의 石築이 남아 있고 方形礎石이 七個가 白南珍氏宅附近에 散在하고 있을 뿐 餘他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筆者가 三十餘年 留意하여 본 結果를 아래에 紹介하여 보면

一, 扶餘博物館 王興寺出土의 石佛座像(破壞가 甚하며 現高六八cm 膝幅七〇cm)一軀는 一九四七年에 移置(時代百濟)한 것이며,

二, 一九三七年春에 窺岩面外里에서 發見되어 이미 發表된 八種文樣 博中 蓮華文博과 同一한 蓮華文博片(縱二三·五cm 幅一三·二cm 厚三·八cm)이 一九三八年春에 王興寺址에서 發見 扶博에 收藏하고 있다.

三, 一九三一年에 筆者가 扶餘에 와서 처음으로 눈에 드인 것은 舊校里구들래部落(日政時 上水道탱크가 現存)에 高約二·五m 南北으로 長方形의 埜地 三百坪可量의 周圍를 石築한 것인데 이 石材들은 百濟時代의 長臺石等으로 보았다. 이 石材들이 水道탱크가 設置될때 一九三五年頃 江景方面에 어느 富豪가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몹시 愛惜하게 알았으나 찾을 길이 없던 바今次 그 石材들이 論山郡 城東面 牛昆里(바라소곤部落) 朴祥來(死亡 現家主 朴明鎬 三八歲)家材로 使用함을 알고 찾아본 結果 別紙와 같은 門石三種과 方形礎石 一個 石燈竿石等으로 볼 수 있는 八角柱二個(兩分?) 礎石에도 八角形(A)形과 (B)形二種이 있으며 上面과 四方側面만을 治石한 板石에 縱七四cm 幅三八cm 二十四個, 縱九五cm 幅四三cm 五個, 長六七cm 幅四〇cm 板石 一個를 發見하였는데 모두가 時代는 百濟인 것을 알게 되었다.

本是 이 石材로써 舊校里에 築臺를 쌓게된 始初는 高宗時代 李學官이 사랑채(舍廊)를 西向하여 九間을 建築한 것이며 다음에 李道宰(忠淸道 觀察使)別墅로 다시 天道教布教所로 變遷하였다가 乃終에는 前記한 바와 같이 牛昆里 朴祥來에게 石材와 木材가 넘어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牛昆里 姜老人과 舊校里 張德秀 七二歲 談)

三

牛昆里에 移轉된 石材가 本是 舊校里 李學官의 家材로 使用하게된 것은 新造의 石材가 결코 아님을 알게된다면 그 石材들은 對岸王興寺址에

사 搬出된 百濟時代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扶餘附近에서는 花崗石이 發掘되지 않을 뿐더러 牛昆里에서 본 八角石柱가 石燈竿石이라는 것과 門石 등이 百濟時代것임을 보아서도 確信을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窺 岩里出土 八種文樣磚의 蓮華文樣과 同一한 磚片이 王興寺址에서 發見된 것도 亦是 石材가 散逸될때에 文樣磚은 窺岩方面으로 移轉되어 어느 某 家의 土牆石으로 使用하였던 것을 文樣磚出土狀況으로 알겠고 文樣磚出 土地가 寺址云云의 口傳과 傳說이 全然 없고 出土地 그場所가 田地이 었던 것도 筆者가 目睹한 것이다.

그러함에서 現牛昆里에 있는 石材들이나 窺岩里文樣磚 등은 王興寺廢 刹로 因하여 그 資材들이 四散의 運을 보게 되었고 現王興寺址에는 廢墟 地로 變化하여서 그 當時의 附山臨水하고 花木秀麗하여 四時之美를 오 늘날에는 찾을 길이 없음을 嘆하여 마지 않는다.

資 料

金鼓龍架

洪 思 俊

우리나라 各處 刹에는 金鼓가 여러개 있음을 안다. 그러나 金鼓를 掛架한 刹은 그리 많다고 보지 못하겠다. 지금 紹介하려는 金鼓架는 公 州鷄龍山 甲寺 大雄殿內에 備置한 것으로 架構가 木造이며 肉刻된 雙龍 이 左右側에서 如意珠를 서로 爭取하는 形態는 實物龍을 방불할 만큼 彫刻이 잘 되었음을 알겠고 架臺는 虎形을 彫刻한 것이다. 架構形을 雙 龍으로 하되 色彩는 靑綠色으로 塗裝하고 架臺는 虎形에 白色胡粉을 칠 하였다.

全高約 2m의 靑龍木刻이 虎形臺上에 있고 그 中央에 圓形金鼓를 上 과 左右 三處에서 매달았으며 서서 칠수 있는 龍架이다. 壬辰倭亂에 甲

寺가 全燒된 것은 이미 아는事實이지만 이 金鼓龍架도 甲寺新築과 同時이 거나 又是 그 後의 作品으로 보겠는데 그 龍架製作의 아름다운 手法은 비록 李 朝時代作이나 優秀 品이라 아니할 수 없 다.

虎形臺의 白色漆이 거의 脫落되고 腹部 頭部 等에만 남아 있다. 龍架 에 比해서 虎臺가 적은 便이다. 끝으로 架構를 龍形으로 架臺를 虎形으로 構想한 意匠은 靑龍이 奇數 에 白虎가 偶數로 陰陽思想에서 이루어진 架構라 하겠다.



考古美術 一〇

◎ 文財委 第一分委 第五次 會議

一九六八、二、八午後二時 文財局 局長室에서 開催、金庠基 李弘植 趙明基 崔淳雨 裴濂 裴吉基 秦弘燮 各委員 및 局長 係長 出席、討議事項 다음과 같다.

一、都市計劃에 依한 德壽宮 담 一部 移築에 關한 事項

大漢門을 現位置에서 保存할 것、展示館을 撤去할 것、移築하는 담은 現在 의 鐵柵을 없애고 사고적 담으로 할 것 等を 條件으로 一六m 안으로 移置하 기로 可決

二、七宮 一部 撤去

正門을 保存하고 現狀과 같은 담을 쌓고 庭園을 保存하는 條件으로 可決 三、光州市 신안동 所在 胎室 二基와 石碑 一基를 光州市立博物館으로 移置하